

현경준의 〈유맹〉 연구

차 성 연*

차 례

- | | |
|---------------------|------------------------|
| 1. 서론 | 3. 환멸과 갱생, 양가적 욕망의 대화적 |
| 2. <유맹>의 개작, 서사의 분열 | 형식 |
| |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현경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유맹>을, 이를 개작한 <마음의 금선> 및 《도라오는 인생》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책문학으로도 저항문학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었던 <유맹>의 다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경준의 <유맹>은 만주국 수립으로 인한 정책의 변화 및 중독자 갱생을 통한 국민 만들기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기보다는 1930년대의 전망 상실과 주체 몰락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꿈을 회상함으로써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 생성에의 길로 나설 것인가 하는 양가적 욕망의 갈등을 대화적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유맹>이다.

주제어 : 현경준, <유맹>, 국책문학, 만주국, 갱생, 환멸, 대화적 형식

* 경희대 강사

1. 서론

일제말기의 만주는 갱생의 장소로 표상된다. 《북향보》¹⁾나 《대지의 아들》²⁾과 같은 만주이주민 소설에서도 이주 조선인이 부동성을 버리고 교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벽공무한》³⁾에서도 만주를 다녀오면 물질적 충족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을 이루게 됨을 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대륙》⁴⁾이나 《사랑의 수족관》⁵⁾에서도 성격개조를 할 수 있는 공간, 직분의 윤리에 충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만주는 인물들의 갱생을 통해 현실을 초극할 수 있는 장소로 재현되었다.

현경준⁶⁾의 <유맹> 또한 이러한 ‘갱생’ 공간으로서의 만주를 그리고 있다. 특히 만주국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편중독자의 갱생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룸으로써 그동안 국책문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국가적 차원의 갱생 시스템은 의도적인 국민만들기를 통해 국가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게 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맹>은 ‘갱생’보다는 등장인물들의 ‘환멸’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망의 상실과 그로 인한 환멸은 인물들이 아

1) 안수길, 《북향보》, 『만선일보』 1944. 12.~1945. 4. 7.

2) 이기영, 《대지의 아들》, 『조선일보』 1939. 10. 12.~1940. 6. 1.

3) 이효석, 《벽공무한》, 『매일신보』 1940. 1. 25.~7. 28.

4) 한설야, 《대륙》, 『국민신보』 1939. 8. 1.~1940. 3. 3.

5)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 8. 1.~1940. 3. 3.

6) 현경준은 1909년 2월 29일 함경북도 명천군 하가면 화대리에서 출생했다. 호는 경운생(또는 금남), 김경운이란 별명을 쓰기도 함. 1937년에 만주로 건너가 8년간 정착생활을 하다가, 1945년 광복 후 북한으로 귀향, 이후 함경북도 문학예술분야의 여러 직책을 역임하고, 1950년 10월에 인민군 중군기자로 전선에 나갔다가 전사함. 작품으로는 《도라오는 인생》 등 장편 3편, 중편 4편, 단편 22편, 그리고 수필·수기·기행문·평론 등 기타 작품이 17편이 있으며 발굴 부진으로 아직까지 텍스트를 수집할 수 없는 소설 작품도 6-7편이다.(차광수,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7집, 2005. 6, 405-406쪽 참고)

편 중독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갱생’을 거부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작품에서 ‘갱생’과 ‘환멸’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다성적 목소리로 등장해 서로 대화를 나눈다. 「유맹」에서 「마음의 금선」으로의 개작 과정을 보면, 국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 갈등과 대화적 형식의 확대로 나아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도라오는 인생』에는 국책과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후 「마음의 금선」에서 다시 한번 개작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데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현경준의 <유맹>은 만주국의 금연정책을 홍보하는 국책문학으로 평가받아왔다.⁷⁾ 최근 들어 국책홍보와 관련된 표층 서사와 충돌하면서 그에 저항하는 심층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유맹>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저항성을 찾아내려는 연구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있어 <유맹>의 의미를 단순화시켰던 한계가 있다.⁸⁾ 한편으로는 1930년대 만주의 상황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몇 차례의 개작이 이루어진 텍스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⁹⁾ 이처럼 현경준의 <유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밀하게 분석되고 연구되어야 할 텍스트이면서도 국책문학이거나 저항문학이라는 단순화된 평가를 받아왔으며, 그 양적인 성과도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만주’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안수길처럼 만주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재만 조선인

7)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현대소설연구』, 2002.

김진아,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 :『썩트는 大地』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2005. 6.

8)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 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 『현대문학의 연구』, 2008.

박일우, 「한국 근대문학의 만주 표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9.

9) 이경훈, 앞의 글.

의 삶을 꺾진하게 다루어온 작가인 현경준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현경준의 <유맹>이 환멸과 갱생이라는 인물들의 양가적 욕망을 대화적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고, 이를 작품의 개작과정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여기서 개작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완의 형태로 끝났던 <유맹>이 개작과정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좀 더 분명해지고 작품의 완성도 또한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는 <유맹>이 국책문학이거나 저항문학이라는 어느 한 쪽의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텍스트가 아니라 당대 지식인의 분열된 욕망을 보여주는 텍스트임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유맹>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유맹>의 개작, 서사의 분열

중편소설 <유맹>은 『인문평론』에 처음 발표된 후¹⁰⁾ 『만선일보』에 <도라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확대 개작되어 실렸다. 1941년 11월 1일부터 1942년 3월 3일까지 총 94회분으로 연재된 <도라오는 인생>은 41회분까지는 <유맹>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42회부터는 그 후속편

10)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유맹>이 『광업조선』(1939. 3.)에 처음 발표된 후 같은 작품이 『인문평론』(1940. 7-8.)과 <썩트는 대지>에 다시 실렸다고 서지사항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경훈은 『광업조선』의 <유맹>이 『인문평론』의 <유맹>과 다른 작품이며 따라서 <현경준>(허경진 외 주편)에서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광업조선』의 <유맹>이 『인문평론』에 다시 발표되었다고 명시한 부분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필자의 확인 결과 이경훈의 지적대로 『광업조선』의 <유맹>과 『인문평론』의 <유맹>은 다른 작품이었다. 다만 『광업조선』의 <유맹> 또한 만주의 아편밀수업자를 다루고 있고 <유맹>류의 작품들 중 가장 먼저 발표되었으므로 『인문평론』의 <유맹>과 그 영향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43년 12월 홍문서관에서 작품집을 낼 때는 다시 <마음의 금선>이라는 제목으로 <유맹>의 개작본을 싣는다.¹¹⁾ 개작된 내용은 《도라오는 인생》에 거의 수록되었던 것이지만 <마음의 금선>은 장편의 압축이 아닌 완성도 높은 하나의 중편소설로 볼 수 있다. 장편소설로 확대 개작하고도 그것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않고 다시 중편소설로 개작하여 다른 몇 편의 단편과 함께 작품집으로 묶었다는 것은 작가가 <유맹>이라는 작품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확대 개작한 장편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도라오는 인생》은 <유맹>에 비해 소장과 명우가 갱생을 독려하는 인물로서의 헌신적인 성격이 좀더 분명해졌고 이와 대비되는 인물로 규선 외에 인규를 등장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마음의 금선>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도라오는 인생》에는 이 외에도 후반부에 부락의 교육사업, 목재 사업, 타부락민의 입적과 같은 만주국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다.¹²⁾ 서사의 중심인 ‘소장과 명우’/

11) 차광수는 「현경준의 <유맹>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5. 6.)에서 중편 소설 <유맹>이 장편 《도라오는 인생》의 전편에 해당하는 미완의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논증하고 있는 <유맹>이 미완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이 작품의 평가나 문학사적 의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 본고는 <유맹>이 미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도라오는 인생》이라는 장편으로 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개작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12) 《도라오는 인생》은 《현경준》이 발행됨으로써 처음 발굴된 것이지만 책이 발행되기 전에 차광수(중국 연변대학 부교수)에 의해 서지적인 사항이 꼼꼼하게 분석된 바 있다.(「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5)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광업조선』의 <유맹>을 『인문평론』의 「유맹」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등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참고문헌에 『광업조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원전으로 밝히고 있는 작품집을 텍스트로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현경준》의 편자는 “이 작품은 『만선일보』에 총94회로 나누어 연재되었다. 편자가 입수한 자료는 제23회(1941. 11. 1.)부터 제94회(1942. 3. 3.)인데 그 가운데서 10회분이 결호되었다. 『만선일보』에 연재된 이 작품은 본 대계를 통해 해방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발표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연변대학의 일본인 류학생 모리 아키라가 2001년 하기방학기간 일본 와세다

‘인규와 규선’의 대립과 동떨어져있는 후반부 내용들은 <마음의 금선>에서는 삭제되었고 이로써 《도라오는 인생》보다는 <마음의 금선> 쪽이 더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지도 못하고 중심 서사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지도 못하는 후반부는 장편소설로서의 분량을 채우는 의미밖에 되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이 《도라오는 인생》을 연재하면서 추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재 지면이 『만선일보』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선일보』는 국책적 성격이 강한 신문이다. 김창걸이 『만선일보』 검열과 관련해 절필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작품 내용에 관한 개입도 많았던 지면이다. 금연문예, 협화문예와 같은 지면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만주국의 정책 홍보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신문에 아편 정책과 관련된 소설을 연재하면서 국책에 동조하는 내용을 삽입했다는 것은 자기 검열에 의해서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든 검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나 서사전략을 살피는 데에는 《도라오는 인생》보다는 <유맹>이나 <마음의 금선>에 주목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본다.

<유맹>과 <마음의 금선>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인물의 성격에 통일성을 부여한 점이다. <유맹>에서는 보도소소장이나 명우, 규선의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소설의 서두에서 최초의 탈주 사건에 대해 명우와 병철이 저항하는 장면에서 소장은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다가 후반부에서는 명우와 규선이 갇생을 위해 헌신하는 성격으로 변모한다. 인물의 성격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마음의 금선>에서는 소설의 서두에서 소장의 인격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대학에서 수집한 것이다.”(p.615)라고 밝혔다. 이경훈의 글도 <유맹>이 《도라오는 인생》으로 확대 개작되어 <유맹>을 연구할 때 이와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있지만 《도라오는 인생》이 완전한 판본이 아닌 점을 들어 차후의 과제로 남겼다.

소장의 낯색은 새파랗게 질려간다. 그는 무에라고 말하려고 씹은거리
기는하나 입술만 푸들푸들 떨릴뿐 종시 입은 열지 못한다.<유맹>, 422
쪽)

갑자기 장내가 현소해지며 이구석 저구석에서 킬킬하며 웃는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소장은 아모말도 없이 슬은 표정으로 어느때까지던지
병철의 얼굴에서 시선을 땔줄 몰은다.<마음의 금선>, 487쪽)

이를 소장과 명우가 국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성격으로 변화했다
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유맹>에 대한 작가의 애착과 계속된 개작 과
정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작으로 볼 수
있다.

개작을 하면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부분은 명우와 인규, 규선간의 대
화와 내적 갈등이다.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과거의 잃어버린 꿈이
다. 그것이 첫 사랑이든 정치적 전망이든 옛날의 꿈을 잃었고 꿈을 되찾
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환각 속에서 그 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
의 금선>의 목차로 제시되어 있는 “1. 최초의 탈주, 2. 부락점묘, 3. 천국
도, 4. 양심의 잔편(殘編), 5. 마음의 금선, 6. 잃어진 세월, 7. 지옥으로 가
는 길, 8. 향수의 노래, 9. 빛과 어둠”¹³⁾ 중에서 5와 6, 8과 9장에 명우와
규선들의 논쟁이 등장한다. 5장에서는 인규가 “북구(北歐)의 어떤 연애
소설에 나오는 시”를 읊고 이어 명우가 “폴키-의 「지옥의 노래」”를 낭독
하며 마지막으로 규선이 자신의 자작시 “심금(心琴)”을 읊조린다. 오상
순은 이 시에 대해 “사랑시라는 표층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심층적으로

13) 허경진 외 주편, <마음의 금선>, 476쪽.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띄어쓰기를 현대
식 표기로 바꾸었다. 참고로 <유맹>의 목차는 “1. 최초의 탈주, 2. 부락점묘, 3.
천국도, 4. 양심의 잔편, 5. 마음의 금선, 6. 지옥으로 가는 길, 7. 빛과 어둠”이다.
<마음의 금선>에 ‘6. 잃어진 세월’과 ‘8. 향수의 노래’가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같은 소제목이라도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산재(散在)해 있다.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⁴⁾ 파랑새, 슬픈 전설, 잃어버린 꿈을 확대해석하면 잃어버린 조국의 의미까지 포괄할 수 있겠지만 이는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연구자의 주관이 투영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조국은 아닐지라도 잃어버린 꿈에 대한 그리움은 역사적 전망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선은 한때 정치운동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는 자이고 당시의 중독자들은 현경준의 작품 외에 많은 작품들에서 전망의 상실에 따른 환멸감을 환각으로 대신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6장 ‘잃어진 세월’에서는 “국가도 몰고 사회도 몰고 친구도 몰고 마지막에는 자식까지 몰으는 그들”을 상대로 희생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회의를하던 소장이 ‘한 알의 보리알’이 되겠다며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장면과, 그러한 마음으로 펼쳐보려는 교육 사업에 인규가 교원 역할을 맡아 주기를 명우를 통해 청탁하는 장면이 나온다. 교원의 경험을 갖고 있던 인규는 그러나 “모든 것이 귀찬쿠 실증만나는놈에게 무슨 성의가 있겠는가?”라며 거절한다. 이러한 인규를 보며 마음의 공허를 느끼는 명우는 규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각하면 과거란 모도다 슬픈 전설이지 어느것하나 질거운 것이 있었는가? 이것은 인생에게 있어서는 필연적 숙명이라구 나는 생각네 력사란 전부가 슬픈 전설이 아닌가? 장엄하다는 력사도 위대하다는 력사도 모두가 슬픈전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인류의 력사가 계속 되는날까지 그냥 그대로 계속될 진리라구 나는 생각하네 그럼으로 군의 말과같이 내가 나의과거의 슬픈전설을 회상한 다는 것은 결코 슬픈일은 아닐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그것은 결국 또하나 다음날의 슬픈전설을

14) “나라를 잃고 일제의 망국노로 전락 된지도 십수년이 되는 시점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느냐?”고 한탄하며 망국의 그날을 추억한다. 어머니의 죽음보다 더 슬픈 망국의 슬픔, 이로 하여 마음속에 드리운 검은 상장, 조문권채 흐느끼는 우리 민족의 지성인 또는 작가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망국의 한의 정서가 그대로 느껴진다.” —오상순, 앞의 글, 96-97쪽.

나키위할일세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자신이 새로운 전설을 나올때마다 의식적으로 냈느냐? 무의식적으로 냈느냐? 즉 다시말하면 능동적이나? 피동적이나? 하는것이라구 생각하네 이런의미하에서 볼 때 우리들은 과거에 있어서 너두 피동적이였다고 나는 절실히 생각네 피동적이였기 때문에 그에서비저진 슬픈전설은 필연적으로 비력사적이고 비현실 적이였다고 생각네 그러잖은가? 규선이 내가첫사랑에 실패하구 돈을벌라다가 타락이 된것이나 자네가 정치운동의 선상에서 떠러져가지구 타락이된 것은 모도다 무의식적이구 피동적이였기때문이라구 하는 것은 자네 자신이 오히려 더잘 짐작하구 있을일이 아닌가? 이에서 더 한심한일이어디 있는가? 더구나 자네는 정치운동자가 아니었는가? 리상주의자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주의는 무엇때문이며 그운동은 누구때문이었는가? 내 일개인의안일이나 사욕을 채우려이아니였다면 과도기의 거센 물결에있어서도확호한 신념과 냉정한 비판력을 왜 일는단 말인가? 모두가 피동적이였든 탓이 아닌가? 그 어리석었든 피동적시대를 겨울르게 회상하며 자아를 망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다는건 이얼마나 어리석은 수작인가? 진실로 자네의 일허진 세월을 다시금 찾아야하며 나는 내 일생을 받쳐서라두 있는힘을되다 써볼 작정이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아니 거부할 용기를 가졌다면 자네는 이앞에홀러가는 저장물에 빠져죽어보게」(<마음의 금전>, 551쪽, 밑줄은 필자)

위와 같은 명우의 말에는 소위 갱생한 인물로 여겨지는 명우의 내면이 어떠한 것인가가 잘 드러나 있다. 명우의 갱생은 국책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피동적 시대’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사람의 소생은 국가적으로 보아도 그렇구 사회적으로 보아도 그렇구 결코 일개인의 소생만아니라”(566)는 것은 국책에 부응하여 만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를 살아갈 주체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과도기의 거센 물결에 있어서도 확고한 신념과 냉정한 비판력”을 잃어버린 현 세태를 엄정하게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유맹>에는 없던 8장 ‘향수의 노래’에는 탈주하다가 다친 규선을 간호하는 소장의 인간적인 모습과 인규의 내면적 갈등이 적힌 일기가 소

개되어 있다. 인규는 여전히 “일체를 망각한 나에게는 지위도명예도 지식도아모런 욕망도없다. 그저 혼돈된 세계에침전되려는 그 용망밖에는 없다”며 ‘과거 청산’을 얘기하는 명우에 대해 ‘속물’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렇게 보면 <유맹>에 비해 개작된 <마음의 금선>은 중독자인 명우, 인규, 규선의 내면 갈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편으로 확대 개작하면서 국책 홍보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첨가했던 《도라오는 인생》과 달리 <마음의 금선>이 중독자들의 환멸/갱생에의 양가적 욕망, 그 내면 갈등의 전개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대상에 열정적으로 투사되었던 리비도는 실연이나 역사적 전망의 상실을 겪으면서 투사될 대상을 상실함에 따라 주체에게로 회수되며, 대상에 대한 원망이 주체에 대한 소멸 욕망으로 나타난다. 인규나 규선이 말하는 “혼돈된 세계로의 침전 욕망”이란 이러한 주체 소멸의 욕망이며 잃어버린 꿈에 대한 그리움은 대상이 소멸되기 이전 세계로의 퇴행 욕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¹⁵⁾ 이에 비해 명우가 행하는 피동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애도를 끝내고 리비도를 회수하는 과정으로서 능동적 태도, 생성에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15) 우울증 환자는 비애에는 결여되어 있는 다른 것, 즉 극도의 자존심 위축, 극도의 자아(ego)의 빈곤을 보인다. 비애의 경우 빈곤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은 바깥 세계인 반면에 우울의 경우에는 자아가 그렇게 된다. 환자는 자신의 자아가 하찮고, 어떤 일도 해낼 능력이 없고, 도덕적으로 비열하다고 주장한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추방되거나 벌을 받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는 누구 앞에서든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 —Freud, G., 윤희기 역, 「슬픔과 우울증(Trauer und Melancholie)」, 『무의식에 관하여』(프로이트 전집 3), 열린책들, 1997.

우울증의 특징을 이루는 이 나르시즘적 자기동일화에서 자아는 극도로 위축되고 분열된다. 자아 속에 갇힌 분열된 주체에게 결여된 것은 행동이며 과잉된 것은 관념이다. 우울에는 대상에 대한 애정과 증오가 공존한다. 우울증 환자는 상실 대상에 대한 나르시즘적 자기동일화 속에서 애정과 증오의 앰비밸런스를 최대한 즐긴다. ‘우울한 형’의 세대가 잃어버린 것은 사회주의 이념인데 그들은 일찍이 거기에 중독되었다. 이제, 아편은 사라졌지만 중독은 남았다. ‘빠지고 싶다’는 매혹이 커질수록 ‘버리고 싶다’는 혐오도 커지는 상태, 그 앰비밸런스의 극단인 중독이다. —김철, 「우울한 형/명량한 동생」, 『상허학보』, 2009, 153-191쪽.

<유맹>에서 <마음의 금선>으로 개작될 때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바로 결말이다. 규선은 득수를 대신해 아편을 밀반입해오다 적발되어 구류소로 가게 된다. 규선이 떠나기 전 명우는 마지막으로 개심할 것을 청해보지만, 규선은 “앞날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 나로서는 결국 과거의 꿈밖에 회상할 것”이 없으며 “부질없는 충고는 말아 달라”고 한다. <유맹>은 이러한 규선이 떠난 후 그 처가 끝내 목을 매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마음의 금선>은 처의 자살을 언급하지 않고 규선이 병철을 비롯한 다른 몇몇과 함께 구류소로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유맹>이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만주국의 국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 반면, <마음의 금선>은 국책을 수용하는 태도로 개작됨으로써 그 비극성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곤 했다.¹⁶⁾ 그러나 이 또한 규선의 내면 갈등에 좀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로 인한 가족의 비극은 생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선은 “한때는 정치운동의 선봉에 나서서 불타는 정열로 날뛰었다는 중독자”로서 소장과 명우의 노력에도 끝내 교화되지 않는다. 그는 명우를 “맨밋구렁텅에 떠러져못본자”, “지옥의문 어구에만 가봤지 안에는채들어가못본자”라고 하면서 자신과 구별짓는다. 또 <유맹>에는 없던 인물이었고 《도라오는 인생》에서는 명우와 같이 첫사랑에 실패했던 기억을 가진 중독자로 그려진 인규도 결국은 개심하게 되지만, 그 후 개작된 <마음의 금선>에서는 이러한 인규도 교

16) 조진기(『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현대소설연구』, 2002)는 현경준의 <유맹>과 <마음의 금선>의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면서 이들 두 작품의 결말이 판이하게 바뀌어져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금선>은 <유맹>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손질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일제의 만주지배정책의 하나로 채택한 집단부락정책, 아편중독자의 갱생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노동력 착취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만주에 이주한 유랑민의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 논문은 《도라오는 인생》이 발굴되기 이전에 씌어진 것으로 <마음의 금선>이 시기적으로 《도라오는 인생》 다음에 놓이는 작품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도라오는 인생》과 비교하면 <마음의 금선>이 적극적인 국책 소설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다.

화되지 않는다. 교화의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개작을 하면서 점점 더 교화되는 방향으로만, 즉 국책이 실현되는 방향으로만 나아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맹>은 《도라오는 인생》, <마음의 금전>으로 개작되면서 국책에 부응하는 서사와 인물들의 내면 갈등의 서사, 즉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사이의 분열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인물들의 환멸/갱생에의 욕망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환멸과 갱생, 양가적 욕망의 대화적 형식

<유맹>에 나타난 ‘갱생’은 파시즘적 생성의 원리에 동화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갱생 외에 별다른 사회적 전망을 찾을 수 없는 주체들의 출구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유맹>에서 소위 갱생된 인물로 등장하는 ‘명우’의 내면 갈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 전망의 상실을 겪으며 회수된 리비도는 주체의 소멸 욕망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확고한 신념과 냉정한 비판력”을 되찾으려는 의지로 전환되기도 하는 것이다. ‘인규’나 ‘규선’이 말하는 “혼돈된 세계로의 침전 욕망”과 대비되는 “피동적 태도 비판”은 대상에 대한 애도를 끝내고 리비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생성에의 욕망으로 볼 수 있다.

<유맹>에서 ‘갱생’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환멸’은 아편중독자의 개별적인 소멸 욕망이 아니라 전환기의 시대적인 징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2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근대성의 기획들은 1930년대에 들어 그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1935년 카프의 해체가 대표적이었고 일제에 의한 몇 차례의 검거사건을 거치면서 이른바 전향 지식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전망의 상실에 따른 이들의 환멸은 사회적인 활동의 위축과 관념화된 작품 경향으로 나타났다. 물론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근대초극론의 논리에 동화되어 가는 지식인들이 많았고 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와 달리 새로운 전망을 찾지 못해 회의와 몰락의 길을 걸은 자들도 많았다. ‘아편 중독자’는 이러한 환멸의 세계를 표상한다. 그리고 만주는 이러한 중독자들이 찾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했다. 최명익의 <심문>, 강경애의 <마약>, 김사량의 <향수>, 김남천의 <요지경>, 박영준의 <중독자> 등에는 ‘중독자’들이 등장하며 그들 중 대다수는 만주에 있다.¹⁷⁾

만주가 아편중독자가 찾는 마지막 ‘장소’이자 ‘갱생’의 장소였던 것은 만주국의 정책 변화 때문이다. 만주국은 조선인을 아편 밀매업자로 활용하고 중독자들에게 제한된 흡연을 허용해주는 점금(漸禁)정책을 실시하다가, 전시 총동원체제에 돌입하면서 노동력과 재원의 확보에 더 치중하게 됨으로써 단금(斷禁)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편중독자의 갱생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중독자들에 대한 갱생 시스템이 현경준의 <유맹>만큼 잘 드러나 있는 작품도 없다. “이것은 한 개의 보고문”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유맹>은 아편중독자 및 부정업자, 부랑자들을 수용하는 특수부락을 배경으로 이들을 갱생시키려는 당국의 정책과 이에 반발하는 부락민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좋다.

신홍국가에서는 한사람이라도 건져내서 바른 국민을 만들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다.

더구나 그 빛을 잃고 밑구렁에서 헤매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아까

17) 이경훈은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사이間SAI』제4호, 2008)에서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아편과 마약 중독은 역사적 절망과 주체의 몰락을 인식하고 감각하게 한 서사의 근거이자 묘사의 방법”이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18) 박강, 「‘만주국’의 아편마약 밀매대책과 재만 한인」, 『한중인문학연구』제19호, 2006, 464쪽.

운것이있다.

그 아까운 보물 때문에 위정당국도 변연히 무모에 가까운 일인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실지 시험에 착수하게 된것으로서, 그것은 달음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인재였다.

비록 락오는 되었을까망정 한때는 모두다 리상을 품고 혁혁한 앞날을 바라고 매진하던 그들이다.

그들속에는 기술자도 있고 정치운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종교가도 있고 의술가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각칭을 망라하여 있다.

지식정도는 전부가 소학정도 이상으로서 중학정도 전문정도도 수두룩하다.

어학도 국어와 만주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어, 로어, 독일어에까지 능통한 자가 있다.

이러므로 위정당국이 그 인재를 애끼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426쪽)

위 인용문은 만주국이 아편중독자의 갱생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해준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총동원하여 체제에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처럼 현경준의 <유맹>은 만주국의 국책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한편 그러한 국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락민에게 함부루 손을 대며 제자신의 무능과 무식을 폭로시키는 그런 부락장이나 단장이라면, 어서 곱게 손을 씻구물러앉아라. 우리는 너한테 매맞을 아무런 의무도 가진일 없구,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준일두 없다. 부락장이면 부락장답게, 단장이면 단장답게, 인격적으루 부락민에게 감화를 주며 지도를 해야 한다.」

류창한 말은 꿇질줄 모르고 다시 뒤를 잇는다.

「그야물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인간의 취급을 받지못하는 락오(落伍)의 무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사회의 온갖 박해라든지 조소에는 병어리노릇을 하여왔고, 귀먹어리노릇을 하여왔고, 천치의 노릇을 하여오며 산송장의 생활을 하여온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너

는 무에냐?

너는 우리들을……죽 지옥에서 해매는 무리들을 개전(改悛)시켜서 다시금 참다운 사회인으로 만들려구 자칭을 하여온 소위 지도자라는 것이 아니냐? 설마 우리들에게 매질을 하려구 온 늑이냐 아니겠지? 만약 그런 목적으로서 왔다면 나는 여기서 단언한다. 너같은놈은 지도는커녕 도리어 우리들의 근성을 더한층 빼뚜러지게만 할 늑이다.(…) (419-420 쪽)

물론 당국의 시책에 반대하는, 그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이와 같은 발언을 소설에 삽입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유맹>의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편소설¹⁹⁾ <유맹>은 서로 대립적인 목소리를 병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성성의 대화적 형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장편 《도라오는 인생》으로의 확장과 중편소설 <마음의 금선>으로의 개작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과정에서 대화의 중심은 정책 당국의 목소리와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꿈을 그리워하는 환멸의 목소리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생(蘇生)에의 목소리이다. 명우와 규선과의 대화, 인물들 각자의 내면 갈등에서 소멸과 생성에의 양가적 욕망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치열한 대화를 나눈다. 소설의 중심인물이 명우로 설정되고 명우의 소생(蘇生) 과정이 주된 플롯이 됨으로써 생성에의 욕망이 승하고 만주국의 갱생 시스템이 성공하는 듯 하지만, 과정에서 펼쳐지는 양가적 욕망의 대결, 다성적 목소리의 대화는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병렬적이

19) 박일우(앞의 글, 133-137쪽)는 <유맹>이, 장편이 지닌 ‘스토리의 흥미성’과 단편이 지닌 ‘성격의 진실성’을 조화시킨 중편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는 “중편소설은 ‘현대성’을 통하여 ‘현실성’을 획득하는 양식”이라고 보면서, 현경준이 선택한 중편소설이라는 형식은 보고문이라는 서술방식과 교직하면서 작품 속에 재만 조선인의 다양한 삶의 층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다.²⁰⁾ 오히려 대화의 전개만을 보자면 갱생을 독려하는 명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는 규선의 목소리가 더 우세한 편이다.

「그건 그러이. 허지만 여보게 명우. 저로서도 알지못할건 제맘일세.
 개심개심하지만 나한테 그제 제일 문젠세. 자네는 다행히 잃었던 옛
 꿈을 다시 찾아서 앞날에 희망을 걸게 되었다지만, 나한테야 뭐가 있단
 말인가? 앞날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 나로서는 결국 과거의
 꿈밖에야 회상할 것이 무엇이 있단말인가?
 한포 먹으면 자욱-히 흐려드는 머릿속에 그림같이 떠올르는 그 잃어
 버린 꿈-. 자네 머릿속에도 그 기억은 잘 남아있겠지?」(474쪽)

갱생을 독려하는 명우와 그에 반하는 규선의 대화는 곳곳에 등장하지만 작품의 말미에서 규선이 구류소로 가기 전까지 그들의 대화는 계속된다. 위와 같은 발언은 규선의 “과거의 꿈”에 대한 애도 또한 끝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애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선은 명우와 같이 아편을 끊고 갱생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규선에게 있어 중독의 의미가 애도의 지속을 의미한다면, 그에 대응되는 명우의 갱생은 애도를 끝내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나서고자 하는 생성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현경준의 <유맹>은 만주국 수립으로 인한 정책의 변화 및 중독자 갱생을 통한 국민 만들기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기보다는 1930년대의 전망 상실과 주체 몰락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꿈을 회상함으로써 소멸의 길을 걸

20) 이를 박일우(앞의 글)나 오상순(앞의 글)은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의 차이로 분석한 바 있다. 오상순은 <유맹>을 우회적 글쓰기의 한 방법으로 보면서, 표층구조에서는 위만주국의 ‘왕도낙토’, ‘아편금연’의 국책을 선전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층구조에서는 그것을 전복시키고 부정하자는 작가적 지향과 현실의 비리에 대한 폭로와 부정, 그리고 위만주국 당국에 대한 불만과 저항, 조소와 풍자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 생성에의 길로 나설 것인가 하는 양가적 욕망의 갈등을 대화적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유맹>이다. 이는 생성에의 욕망이 신흥 국가 만주국의 명랑성과 결합하여 시대적 감성을 지배했던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의 분위기에서 그에 반하는 감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만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제말기 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만주로의 이주 정책 및 만주 개발 정책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친일문학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현경준의 <유맹> 또한 그러한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특히 만주국의 아편중독자 갱생 프로그램인 특수부락의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서 만주국 국책과의 연관성은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실제로 텍스트를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국책의 선전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환멸/갱생을 각각 대변하고 있는 인물들의 대화와 내적 갈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만선일보』에 연재된 《도라오는 인생》에서는 국책과의 연관성이 더 짙어지기도 하지만 그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작으로 보이는 <마음의 금선>에서는 그러한 대화적 형식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당시의 만주를 배경으로 했던 작품들 중 <유맹>은 만주국의 국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아편중독자의 시대적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위치가 독특하다. 1930년대 후반기는 일제의 전쟁동원의 논리에 점차 동화되어 가는 시기인 동시에 이념 지향적 주체의 몰락 이후 전망의 상실로 인한 환멸을 경험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

적 징후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아편 중독’이라 할 수 있는데 <유맹>은 이 ‘아편 중독’의 문제를 정책적 갱생 프로그램이라는 틀 내에서 다루면서도 중독자의 내면 풍경인 갱생/환멸의 양가적 욕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국책문학 혹은 저항문학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작품의 다양한 면모에 좀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경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유맹>을, 이를 개작한 <마음의 금선> 및 《도라오는 인생》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책문학으로도 저항문학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었던 <유맹>의 다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경준의 <유맹>은 친일/저항의 대립구도 속에서 중독자에 대한 갱생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갱생/환멸의 양가적 욕망이 대화적 형식을 통해 갈등하는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만주국의 갱생 시스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1930년대의 전망 상실과 주체 몰락의 내면 풍경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 철, 「우울한 형/명량한 동생」, 상허학회, 『상허학보』, 2009, 153-191쪽.
- 박 강, 「‘만주국’의 아편마약 밀매대책과 재만 한인」,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19호, 2006, 459-490쪽.
- 박일우, 「한국 근대문학의 만주 표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 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2008, 87-110쪽.
-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間SAI』 제4호, 2008, 263-289쪽.
-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002, 207-227쪽.
- 차광수,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5, 405-425쪽.
- 허경진 외편, 『현경준』, 보고사, 2006.
- Freud, G., 윤희기 역, 「슬픔과 우울증(Trauer und Melancholie)」, 『무의식에 관하여』(프로이트 전집 3), 열린책들, 1997.

<Summary>

The study of Hyeon Gyeong-jun's <YuMaeng>

Cha, Seong-Yeon

This paper aims to disclose equivocality of <YuMaeng>, which was able to be evaluated as literature for publicizing the national policy and resistance literature, by comparing <YuMaeng>, which can be said to be a Hyeon Gyeong-jun's typical piece of work, with its adapted pieces of work <Mental String> and <<Returning life>> and by analyzing those pieces of work.

It can be said that Hyeon Gyeong-jun's <YuMaeng> focuses on showing internal shapes in relation of a lost prospect and the ruined subject in 1930s rather than on educating the nation through changes of the policy and revival of addicts owing to foundation of the state of Manju. <YuMaeng> is the very novel that represents, in a conversational type, discord of a selective desire, that is, as to whether to go toward the road to collapse or, after escaping from there, the road to revival.

Key Words : Hyeon Gyeong-jun, national policy literature, the state of Manju, revival of addicts, disillusion, a conversational type

■ 논문접수 : 2009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